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배 문 조*(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전 귀 연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은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은퇴 이후 삶을 위한 준비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인식의 전환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은퇴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노후 생활에 적응하는가 하는 것은 은퇴 이전에 개인이 갖고 있던 조건이 환경 및 준비에 의해서 은퇴를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이전에 이들이 가진 태도 및 준비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은퇴 이후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20대에서 60대의 남녀 208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변인으로 연령, 성별, 은퇴예상연령 및 소득을, 심리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 은퇴변인으로 직업만족도, 여가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태도 및 직업에 대한 태도를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소득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은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둘째,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 준비와 신체적인 준비를 보다 잘 하고 있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은퇴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심리적 준비와 신체적 준비를 보다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적통제가 강할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여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이고 심리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가족에 대한 태도와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일찍부터 은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여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은퇴 전에 생의 목표와 생의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 교육을 통해 선행된다면 앞으로의 생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은퇴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고, 은퇴 후 생활에 성공적인 적응을 가져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차후에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